

1. [더오래]꼼꼼한 일본의 치매 노인 돌봄 서비스
2. 중앙일보
3. 입력 2020.10.15 08:00
- 4.
5. 양은심
6. 구독
7. [더,오래] 양은심의 도쿄에서 맨땅에 헤딩(49)
8. 100 세 시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년퇴직 혹은 조기 퇴직해 부모를 모시는 사람도 있다. 부모는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 부모가 조부모를 모시는 걸 보고 자란 세대이기도 하다. 부모를 시설에 보내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자식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부모만큼은 내 손으로 돌보려 한다. 고령의 부모 또한 자식이 돌보는 걸 당연히 여기며 살아온 세대이다. 요양 시설은 어디까지나 자식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 9.
10. 80 세까지 살면 장수라 하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100 세 시대. 부모가 80 대면 돌보는 자식은 60 대다. 손주와 노는 것도 힘이 드는데 고령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닐 것이다. 무리해 허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돌보는 자식이 먼저 쓰러져 입원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남편을 돌보다 무리해 입원하는 부인 이야기도 듣는다.
- 11.
12. 100 세 시대가 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년퇴직 혹은 조기 퇴직해 부모를 모시는 사람도 있다. 부모가 80 대면 돌보는 자식은 60 대다. [사진 pixabay]
13. 100 세 시대가 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년퇴직 혹은 조기 퇴직해 부모를 모시는 사람도 있다. 부모가 80 대면 돌보는 자식은 60 대다. [사진 pixabay]
- 14.
15.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에서 만 92 세의 시부를 모시며 절실히 느끼는 것은,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도움이 크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오래오래 집에서 모시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 16.
17.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는 시아버지는 ‘개호보험(介護保険)제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케어매니저, 요양사, 주간보호 센터가 관여한다. 케어매니저는 모든 사항을 통괄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건강 상태와

성격에 맞춰 요양사와 주간보호 센터를 물색하여 제안한다. 요양사는 보호자가 의뢰한 서비스를, 주간보호 센터에서는 오락, 운동,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 건강의료보험으로 한 달에 두 번 의사의 왕진을 받는다.

18.

19. ADVERTISEMENT

20.

21.

22. ADVERTISEMENT

23.

24.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 복지과의 ‘개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등급에 맞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과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이 정해지면 ‘개호 회의’를 연다. 케어매니저, 요양사, 주간보호 센터 담당자, 보호자가 모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서비스와 일정을 조정한다.

25.

26. 우리 가족의 목표는 시아버지가 가능한 한 오래오래 혼자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처음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화장실 출입이 힘든 시기였다. 다리의 근력이 떨어져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지금은 체력도 회복되었고 서비스를 받기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시아버지는 요양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한다. 가족과 이야기할 때와는 내용도 다름뿐더러 목소리 톤도 달라진다. 그리고 타인 앞이라서인지 썩썩해지기도 한다.

27.

28. 우리 가족은 요양사가 오면 일단 그 자리를 뜬다. 가족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아버지 또한 가족이 없는 편이 훨씬 자유롭다. 물론 떨어져 있어도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분위기는 알 수 있다. 돌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서로가 질문하고 수정해 간다.

29.

30. 고령자를 모시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그게 현실이다. 그 현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사회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진 pixabay]

31. 고령자를 모시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그게 현실이다. 그 현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사회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진 pixabay]

32.

33. 계약한 이외의 일은 절대 부탁하지 않는다. 가끔 요양사를 가정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차 좀 끓여달라, 거기 좀 살짝만 치워달라는 등등. 그건 정말 실례라고 생각한다. 내 가족을 돌보는 게 힘들어서 요양사를 부탁한 거다. 내가 해야 할 일까지 해 달라고 해서는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설사 돌보는 대상이 차를 마시고 싶다 해도 계약 내용에 없으면 가족이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그 서비스까지 포함해 계약하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게 도리다. 친해졌다면 내가 차를 대접하는 일은 있어도 요양사에게 차를 끓이게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우리 집의 경우 하루 30 분 계약이기 때문에 차를 마실 시간도 없다.
- 34.
35. 요양사가 마음이 편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돌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기분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관 주변도 더 신경 써서 가꾼다. 주간보호센터에 갈 준비를 하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며, 꽃과 나무를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이 피기도 한다.
- 36.
37. ADVERTISEMENT
- 38.
- 39.
40. 돌봄 서비스 덕분에 시아버지는 체력을 되찾았고, 우리는 스트레스 없이 시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었다. 큰 스트레스가 해결되면 소소한 문제는 감수하게 된다. 이런 것 정도야라고. 요양사는 나의 밝아진 표정에서도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을 때 나는 걱정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 41.
42. 고령자를 모시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그게 현실이다. 그 현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사회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통감하고 있다.
- 43.
44. 치매가 심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만나러 갈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 부모를 보는 게 힘들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 보자. 부모는 나를 몰라봐도 내가 부모를 알아본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 45.

46. =====

47. 노인만 태우는 'LAS VEGAS 검정車'...고령화 日서 대박 난 그곳

중앙일보

입력 2022.12.11 05:00

업데이트 2022.12.11 14:1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서유진 기자 구독

지난달 일본 도쿄 마치다(町田)시. 오전 9시 30분 금색으로 '라스베이거스(LAS VEGAS)'라고 적힌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아침부터 그가 찾은 곳엔 슬롯머신과 파친코 기계, 마작 테이블 등이 여럿 놓여 있다. 그런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들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일본에서 카지노와 요양시설을 접목한 이색 서비스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카지노 게임을 하기 전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푸는 모습. 사진 라스베이거스 공식 페이스북 캡처

65세 이상 인구 비율(29.1%)이 세계 1위인 일본에서 요양시설과 카지노를 접목한 어르신 돌봄 센터 '라스베이거스'가 인기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TBS 방송은 "벽 쪽에는 슬롯머신 등이 9대 설치돼 있고 어르신 19명이 마작, 파친코를 하고 있었다"면서 "요양시설인지 카지노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이 '라스베이거스'는 2013년 도쿄 아다치(足立)구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일본 전역에 지점 22곳이 있다. 모리 가오루 사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찰을 하면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당시 모리 사장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크게 지고 난 후 주위를 보니 어르신들이 많았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탔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았다고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모리 가오루 사장은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은 요양시설로 바꾸고 싶었다"고 전했다. 사진 라스베이거스 홈페이지 캡처

모리 사장은 기존 요양시설에선 색칠 공부·종이접기·볼링 등을 하는데 주로 남성들이 "재미없다, 안 다니고 싶다"고 불평하던 점도 떠올랐다. 그는 "일본에선 '나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다닌다'는 인식이 강한데, '카지노 가는 기분'으로 즐기면 좋겠다고 생각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원 회의에서 반대가 컸지만 "실패하면 책임지겠다"면서 밀어붙였다고 한다. 이 시설을 다니는 어르신들의 일과는 오전 9시 집 앞에서 특별한 차량을 타는 것으로 시작된다. "흰색 차량이 오면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는 걸 이웃에게 들켜 싫다"는 불만을 반영해 싱가포르에서 카지노와 호텔을 오가는 검정 차량을 도입했다. 직원들도 휴양지에서 볼 법한 유니폼을 입고 분위기를 낸다.



흰색 차량이 집 앞으로 모시러 가면 이웃사람들이 "저 분은 요양 서비스를 받는구나"라는 소문이 나서 싫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은색 차량을 보낸다. 사진 라스베이거스 홈페이지 캡처

시설에 도착한 어르신들은 우선 혈압 체크 등 건강을 점검하고 스포츠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스트레칭을 한 뒤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료'는 진짜 돈이 아닌, 매일 체조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베가스'란 화폐를 사용한다. 운동을 싫어하는 노인들도 체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시설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게임머니인 '베가스'. 사진 라스베이거스 홈페이지 캡처

1 회 체조로 받는 '화폐'는 1 만 베가스로, 지난해 1 위를 한 어르신은 1 억 461 만 베가스를 손에 넣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카지노와 요양시설을 접목한 이색 서비스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진 라스베이거스 공식 페이스북 캡처

점심의 경우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식단이 제공되는 기존 요양시설과 달리, 이용자가 밥 먹을 시간이나 메뉴를 고를 수 있다. 오후엔 목욕이나 취미 활동 등을 한다.

ADVERTISEMENT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매일 어르신들의 게임 결과를 알림장에 기재하고 시상식도 개최한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오후 4시 30분, 직원들은 그날 게임 결과를 '패스포트'로 불리는 알림장에 적고 시상식을 연 뒤 귀가를 돕는다. 매일 주는 상이 게임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런 시설을 두고 초창기엔 "노인들이 도박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시설 도입 9년이 지난 현재, 도박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이는 없으며 건강에 도움된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재밌어서 다른 시설은 가고 싶지 않다",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카지노와 요양시설을 접목한 일본 '라스베이거스'에서 2021년 기준 게임머니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은 1억 461만 베가스를 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TBS는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남성들이 재미없다고 기피해 여성 대 남성 비율이 8대 2인 반면, 라스베이거스는 6대 4 비율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본에선 요양 서비스에 도예·서예·시(하이쿠) 짓기, 바느질·노래방·영어회화 등이 접목되고 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이모티콘 만들기, 컴퓨터 조작법 익히기도 인기라고 TBS는 전했다. 일본의 이런 현상은 한국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2070년엔 이 비율이 46.4%가 된다는 전망이다.

아기가 '직원'인 요양원도...따스한 포옹이 '업무'



일본에는 조손 세대 간 교류를 늘리는 차원에서 아기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곳도 있다. 사진
토이프로젝트 홈페이지 캡처

일본에는 아기가 '근무'하는 요양원도 있다. 인구 94 만 명인 기타규슈 시에
있는 요양원이 바로 그런 곳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고령화된 일본 사회에서 노년층에 활기를 주고 세대 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아기 직원'을 둔 요양원이 있다고
보도했다.

4 세 이하가 보호자와 함께 출근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는 게 주요 '업무'다.

단, 의무적으로 일할 필요는 없고 그저 원할 때 와서 걸음마와 웅얼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놀면 된다고 한다. '급여'로는 기저귀·분유, 카페 이용권을 받는다.
이 시설에 있는 노인은 120 명이며 지난해부터 아기 직원 32 명이 출근하고
있다.

노인들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한다. 나카노 교코(85)는 NYT 에 "친손녀를 자주
못 봐서 아기 직원이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아기 입장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상호 작용이 사회성 발달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 는 전했다.

49.

50.

51. 노인만 태우는 'LAS VEGAS 검정車'...고령화 日서 대박 난 그곳

중앙일보

입력 2022.12.11 05:00

업데이트 2022.12.11 14:1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서유진 기자 구독

지난달 일본 도쿄 마치다(町田)시. 오전 9시 30분 금색으로 '라스베이거스(LAS VEGAS)'라고 적힌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아침부터 그가 찾은 곳엔 슬롯머신과 파친코 기계, 마작 테이블 등이 여럿 놓여 있다. 그런데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들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일본에서 카지노와 요양시설을 접목한 이색 서비스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카지노 게임을 하기 전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푸는 모습. 사진 라스베이거스 공식 페이스북 캡처

65세 이상 인구 비율(29.1%)이 세계 1위인 일본에서 요양시설과 카지노를 접목한 어르신 돌봄 센터 '라스베이거스'가 인기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TBS 방송은 "벽 쪽에는 슬롯머신 등이 9대 설치돼 있고 어르신 19명이 마작, 파친코를 하고 있었다"면서 "요양시설인지 카지노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이 '라스베이거스'는 2013년 도쿄 아다치(足立)구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일본 전역에 지점 22곳이 있다. 모리 가오루 사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찰을 하면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당시 모리 사장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크게 지고 난 후 주위를 보니 어르신들이 많았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탔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았다고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모리 가오루 사장은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은 요양시설로 바꾸고 싶었다"고 전했다. 사진 라스베이거스 홈페이지 캡처

모리 사장은 기존 요양시설에선 색칠 공부·종이접기·볼링 등을 하는데 주로 남성들이 "재미없다, 안 다니고 싶다"고 불평하던 점도 떠올랐다. 그는 "일본에선 '나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다닌다'는 인식이 강한데, '카지노 가는 기분'으로 즐기면 좋겠다고 생각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원 회의에서 반대가 컸지만 "실패하면 책임지겠다"면서 밀어붙였다고 한다. 이 시설을 다니는 어르신들의 일과는 오전 9시 집 앞에서 특별한 차량을 타는 것으로 시작된다. "흰색 차량이 오면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는 걸 이웃에게 들켜 싫다"는 불만을 반영해 싱가포르에서 카지노와 호텔을 오가는 검정 차량을 도입했다. 직원들도 휴양지에서 볼 법한 유니폼을 입고 분위기를 낸다.



흰색 차량이 집 앞으로 모시러 가면 이웃사람들이 "저 분은 요양 서비스를 받는구나"라는 소문이 나서 싫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은색 차량을 보낸다. 사진 라스베이거스 홈페이지 캡처

시설에 도착한 어르신들은 우선 혈압 체크 등 건강을 점검하고 스포츠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스트레칭을 한 뒤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료'는 진짜 돈이 아닌, 매일 체조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베가스'란 화폐를 사용한다. 운동을 싫어하는 노인들도 체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시설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게임머니인 '베가스'. 사진 라스베이거스 홈페이지 캡처
 1 회 체조로 받는 '화폐'는 1 만 베가스로, 지난해 1 위를 한 어르신은
 1 억 461 만 베가스를 손에 넣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카지노와 요양시설을 접목한 이색 서비스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진 라스베이거스 공식 페이스북 캡처

점심의 경우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식단이 제공되는 기존 요양시설과 달리, 이용자가 밥 먹을 시간이나 메뉴를 고를 수 있다. 오후엔 목욕이나 취미 활동 등을 한다.

ADVERTISEMENT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매일 어르신들의 게임 결과를 알림장에 기재하고 시상식도 개최한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오후 4시 30분, 직원들은 그날 게임 결과를 '패스포트'로 불리는 알림장에 적고 시상식을 연 뒤 귀가를 돕는다. 매일 주는 상이 게임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런 시설을 두고 초창기엔 "노인들이 도박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시설 도입 9년이 지난 현재, 도박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이는 없으며 건강에 도움된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재밌어서 다른 시설은 가고 싶지 않다",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카지노와 요양시설을 접목한 일본 '라스베이거스'에서 2021년 기준 게임머니를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은 1억 461만 베가스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페이스북 캡처

TBS는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남성들이 재미없다고 기피해 여성 대 남성 비율이 8대 2인 반면, 라스베이거스는 6대 4 비율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본에선 요양 서비스에 도예·서예·시(하이쿠) 짓기, 바느질·노래방·영어회화 등이 접목되고 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이모티콘 만들기, 컴퓨터 조작법 익히기도 인기라고 TBS는 전했다. 일본의 이런 현상은 한국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2070년엔 이 비율이 46.4%가 된다는 전망이다.

아기가 '직원'인 요양원도...따스한 포옹이 '업무'



일본에는 조손 세대 간 교류를 늘리는 차원에서 아기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곳도 있다. 사진
토이프로젝트 홈페이지 캡처

일본에는 아기가 '근무'하는 요양원도 있다. 인구 94 만 명인 기타규슈 시에 있는 요양원이 바로 그런 곳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고령화된 일본 사회에서 노년층에 활기를 주고 세대 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아기 직원'을 둔 요양원이 있다고 보도했다.

4 세 이하가 보호자와 함께 출근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는 게 주요 '업무'다.

단, 의무적으로 일할 필요는 없고 그저 원할 때 와서 걸음마와 웅얼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놀면 된다고 한다. '급여'로는 기저귀·분유, 카페 이용권을 받는다. 이 시설에 있는 노인은 120 명이며 지난해부터 아기 직원 32 명이 출근하고 있다.

노인들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한다. 나카노 교코(85)는 NYT 에 "친손녀를 자주 못 봐서 아기 직원이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아기 입장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상호 작용이 사회성 발달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 는 전했다.

